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Vulnerability of Social Institutions

■ OECD Economic Policy Papers. 57p. 2014.
ISSN(2226-583X)

오늘날 사회(복지)제도는 많은 도전에 당면해 있다. 최근의 경제 위기는 많은 나라들에 높은 실업률과 정부 부채를 안겨 이 나라들의 사회(복지)제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는 각 나라의 잠재적 생산을 낮추어 사회보호제도에 필요한 수입기반을 약화시켰다. 이와 함께 고령화와 기타 장기적 추세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사회(복지)제도는 그 설계에 따라 충격과 추세 변화에 대응할 역량, 그리고 제도와 그 이해관계자 간의 리스크 분산 방식이 결정된다. 사회(복지)제도는 지속가능성, 적정성, 효율성 간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동적 혹은 재량적 조정의 범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연금, 의료 보험 및 실업 보험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지출을 완화함으로써 단기적 충격과 장기적 추세를 흡수하고 견뎌낼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능력과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4

■ OECD. 136p. 2014. ISBN(9789264206946)

보고서는 한국이 장기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창조적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 모델을 버리고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개혁에는 노인세대를 중심으로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단기적 경제 전망은 2014~15년 기간 동안 약 4% 성장하는 것으로 긍정적이지만 장기적 전망은 부진한 서비스 분야, 위약한 중소기업 등과 같이 지속적인 구조적 문제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OECD는 한국은 반드시 혁신을 추구해야 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되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개발 초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보다 역동적인 벤처 캐피탈 분야를 창출하는 것은 창조

적 경제 개발에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 전략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연구개발 투자 대비 수익률을 제고, 생산시장 규제 완화, 정부연구기관의 수준 제고 및 국제 협력 강화,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권고 등 한국이 창조경제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Differences by Mother's Education in the Effect of Childcare on Child Obesity

■ Zafar E. Nazarov, Michael S. Rendall.
Economics Letters, 124(2), pp.286~289, 2014.

본 논문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의 자녀 보육에 대해 자녀의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여성의 학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논하고 있는 주요 선행연구(Anderson et al., 2003 ; Fertig et al., 2009; Ruhm, 2008)가 고임금 노동 여성의 자녀는 아동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은 반면, 저학력/저임금 노동 여성의 자녀 보육에 대해서는 아동 비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산모 고용과 아동 보육 변수와 어머니와 아이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동시에 이러한 관찰되지 않은 요소들이 아동의 비만과 같은 결과적 상태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복합적 선택 문제를 보이는 연구에서는 주의를 요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령, 저자들은 부모의 직접적인 보호(보육)를 받지 않고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고 직장을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여성의 자녀들과는 자녀들의 비만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찰되지 않는 요인의 영향력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분석을 위한 절차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비만이나 비만 위험은 산모 고용이나 아동보육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여성의 고용과 아동보육 선택에 대한 규칙, 아동의 신체적 생산함수(비만과 같은 신체 결과적 상태를 결정하는 함수)를 바탕으로 실증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특정 기간 동안에 비부모 보육의 자녀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EITC(Eamed Income Tax Credit: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와 지역 실업률, 서비스 직종에서의 여성 비율, 평균 임금 등의 경제적 변수를 아울러 고려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EITC 변화를 고려한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자녀들의 출생연도가 1987년에서 1997년의 분포를 보임과 동시에 EITC의 수용 수준이 1990년대 중반부부터 크게 증가하여 여러 지역에서 이에 따른 편익이 커진데 기인한다. 즉, 그 당시의 EITC 수준의 변화는 자녀 출생과 맞물려 있으므로 여성의 취업과 육아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외생적 영향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Meyer et al, 2001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EITC가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 공급에 큰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 역시 EITC를 외생적 요인으로 고려한 근거로서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분석대상인 자녀를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즉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부모의 직접적인 보육을 받는지의 여부이다. 그리하여 1)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지 않고 부모의 보육을 받는 자녀 2)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지 않고 부모의 보육을 받지 않는 자녀 3)어머니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모의 보육을 받는 자녀 4)어머니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모의 보육을 받지 않는 자녀의 네 집단으로 구성된다. 그리하여 종속변수는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상위 5% 이상일 때의 경우를 비만(obese)으로 하여 비만일 경우(1), 비만이 아닐 경우(0)의 이항 로짓 모형을 바탕으로 자녀의 비만 확률을 결정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자녀의 출생 시 몸무게, 성, 여성의 자녀 출산 시 나이, 여성(어머니)의 신체질량지수, 여성이 임신 시에 받을 수 있는 WIC(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저소득층 유아, 산모를 위한 프로그램)와 Food Stamps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에의 참여 여부, 아이의 탁아소 경험 여부, 자녀 출산 이후 여성의 고용 이력,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핵심적 요소로 본 어머니의 학력이다. 특히 어머니의 학력은 네 개의 하위항목으로 나누어 구분한 바 있는데, 각각 고졸 미만(교육연수 12년 이하), 고졸(교육연수 12년), 전문대학(교육연수 13~15년), 대학 졸업 및 그 이상(교육연수 16년 이상)이다. 아울러 자녀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과 가사에서 어머니의 관찰되지 않는 능력, 어머니의 투자, 구매 기호도 변수로 투입되었다.

핵심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자녀의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 효과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와 어머니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모두 통제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어머니가 고졸 미만이거나 고졸일 경우 자녀의 비만 확률은 자녀의 생애가 지날수록(0→60개월), 미세한 감소 혹은 확실한 감소를 보이는 반면 전문대학, 대졸 및 그 이상의 경우 미세한 증가 및 확실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교육연수 13년을 기준으로 나뉜 두 집단에서 증가, 감소의 패턴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어머니 자녀의 경우 비만위험이 1.4%~1.8% 증가하는 반면, 가장 낮은 학력 집단인 고졸 미만 어머니 자녀의 경우 오히려 1.4%~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 결과가 저학력/저임금 노동 여성의 자녀 보육과 아동 비만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비부모 보육을 더 많이 받은 저학력 어머니의 자녀는 비만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Economic impact of Swiss Smoking Bans on the Hospitality Sector

■ Joachim Marti, Jorg Schlapfer.
Economic Letters, 124(1), pp.136~139, 2014.

논문의 제목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접대 구역에서의 금연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

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부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스크린 골프장이나 당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 증진법 전부 개정안이 7월 중 입법예정 되어 법 제화를 도모하는 방침은 금연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논문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저자들은 pell et al.(2008)과 Wildman and Hollingsworth(2013) 등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연이 개인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포괄적인 정책 평가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일종의 왜곡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즉, 금연은 시간과 물질적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접대 구역에서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Adda and Comaglia, 2010),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외부 행동양식과 소비 패턴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실증적인 분석을 요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아울러 경제적 효과를 국가 단위로 분석하였거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이해된다.

실증분석을 위해 연방조세청의 2005~2010년 간 스위스의 26개 주의 접대 구역의 연 2회 총판매금액을 적용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식당, 바, 디스코장의 부가가치세에서 추출한 것이다.

아울러 분석모형으로는 Difference-in-

difference(DID)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실험 또는 준실험설계에 의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모형으로서(Babbie, 2003; 이미영, 2012에서 재인용)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를 바탕으로 실험군에만 투입된 고유한 변수가 미친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분석대상 주 내 금연정책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대해 금연구역 설정 이전과 이후의 일종의 진화 과정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금연정책이 2007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시행되었으므로 TWO-WAY 고정효과를 설정한 DID 패널모형을 바탕으로 판매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은 시불변(time-invariant)지역 특성과 범국가적 추세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식당과 바에서는 금연정책으로 인한 총판매금액의 변화가 없었다. 즉, 금연으로 인한 판매금액이 감소하거나 혹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바에서는 금연 이후 판매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디스코장에서는 금연 이후 판매금액이 감소하는, 이른바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비록 스위스라는 분석의 공간적 범위가 대표성을 떨 수 없지만, 스위스의 금연정책은 접대 구역에서의 판매실적에 대한 역효과가 없음을 보인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DID와 같은 준-실험 틀(quasi-experimental framework)을 적용한 것과 같이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차별성도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저자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연구에서 설정한 식당, 바, 디스코장 등

접대구역의 판매금액은 다른 외생적 변수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금연 정책은 주 경계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특정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못한 것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연정책이 점차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하고, 본 연구와 같은 DID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하거나 혹은 산업연관분석 등의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차후 연구를 기대해 본다.

Why are the Unemployed in Worse Health? The Causal Effect of Unemployment on Health

■ H. Schmitz. Labour Economics, 18, pp.71~78, 2011.

이 논문은 독일을 대상으로 하여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German Socio-Economic Panel의 1991~2008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업과 건강 간의 관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실업과 건강 간의 인과관계를 쉽게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실업을 해서 건강이 나쁜 것인지, 건강이 나빠서 실업을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을 살펴보고 인과관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실업과 건강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을 통

제하기 위해서, 고정효과모델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건강의 변수로는 건강 만족도, 정신 건강, 병원 방문여부를 사용하였다. 특히, 건강 만족도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실제적인 건강의 변수를 모두 통제하더라도 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 결과,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건강에 대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개발국들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국가사회보장제도가 약하고 기업사회보장제도가 강한 미국에서조차도,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저자는 독일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독일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

European Variations in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Students' Cognitive Achievement: The Role of Educational Policies.

■ N. Le Donn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3), pp.329~343, 2014.

이 논문은 교육에 대한 이전의 사회학적 연구에 기초하여, 유럽에 대한 비교적 관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들의 인지능력의 불평등을 분석한다.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2000, 2003, 2006, 2009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인지적 성과의 사회적 차이의 발생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제도적인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22개의 유럽 국가에

대한 PISA의 자료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며, 이 자료는 다수준 분석(학생, 학교, 국가)과 한편으로는 교육시스템의 특징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분석 결과, 교육에서의 자유를 촉진하는 제도적인 변수들(학업의 수많은 경로들에 대한 초기의 선택, 공공 selective 학교와 같은), 본질적으로 학생의 능력에 대한 학교의 사회적 구성의 영향을 확대함으로써 집합적으로 학생들 사이의 교육성과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증폭시킨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반면, 유급제도의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보인 과거와 현재의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유급제도의 영향에 대한 모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빈곤한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은 국가의 지원정책들의 균등화 효과에 대한 가설들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uropean Women:
The Link Between Money, Career,
and Financial Satisfaction**

■ N. Kulic.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3), pp.287~301, 2014.

이 연구는 가구 내에서의 여성의 경제적 웰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소득에만 의존하였던 기존의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들을 넘어서, 여성의 실제적인 고용패턴과 직업적 기회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관점을 차용하였다.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의 1994~2001년 자료를 사용하여, 5개의 산업

화된 유럽 국가들의 결혼한 여성과 동거 여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재정적 만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적 소득이나 순수한 고용상태가 아니었으며, 지속적이고 풀타임의 노동시장참여의 선택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일을 전담하였던 경험은 지속적인 고용에 대한 여성의 재정적 만족을 높였으며, 반면 비지속적인 고용경로는 여성의 재정적 만족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비교는 제도들이 여성의 개인적 성취와 독립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웰빙을 바꾸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여성의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웰빙 사이의 관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을 분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번역 | 라기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장인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요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